

“물들어올때 노 젓자” 2차전지·로봇 등 33社 IPO 대기

하반기 상장 종목수 총 27개
2차전지·로봇제조 등 다양화
SK팜·카카오게임즈 학습효과
코로나에도 온라인 IPO 진행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에서 투자자들이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 신청 및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공개(IPO) 후반주자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SK바이오팜에 이어 카카오게임즈가 몰고 온 공모청약 광풍에 올라타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IPO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제약·바이오와 언택트(Untact·비대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혜를 입은 업종이 대부분이다. 2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을 살펴보면 올해 하반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종목수는 총 28개(스팩제외). 하반기 풀림현상으로 평가됐던 지난해 같은 기간(20개)보다 8곳 늘었다.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신청한 기업들도 33곳으로 전년(25곳)보다 많다. 제약·바이오 기업 비중이 높았던 이

전과 달리 2차전지와 로봇제조, 물류자동화기업 등 업종분포가 다양화된 것이 눈에 띈다. 33곳 중 제약·바이오기업 비중은 12곳으로 약 36%에 불과했다. 특히 핀테크 업계에선 핑거의 상장심사가 승인되며 화제를 모았다. 핑거는 지난 6월 9일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후 약 2개월 만인 1일 합격에 성공했다. 핑거를 시작으로 카카오페이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대어로 평가되는 핀테크 기업들이 내년 IPO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상장을 예고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공모시장에 불을 지필만한 이벤

트는 아직 즐비하다. 상반기와 달리 코로나19 IPO 강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모양새다. 예비상장사 대부분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온라인으로 전환해 IPO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엔 비대면으로 기관투자가 기업설명회(IR) 등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제대로 어필이 힘들다는 이유로 상장 일정을 미루기도 했으나 이젠 예기가 달라졌다. IPO를 준비 중인 한 바이오기업 관계자는 “최근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IPO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광역 지침에 따라 예정됐던

기자간담회나 기관투자가 IR은 비대면으로 대체해 상장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IR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초기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들이 비대면 방식의 IR에 이젠 적응을 한 것 같다”며 “어쩌면 코로나19가 종식돼도 일정 부분은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IPO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려는 예비상장사들의 전략은 현재까진 유효해 보인다. 시중 자금 유동성이 아직 풍부한 탓이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는 60조963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초 51조8000억원에서 18%가량 늘어난 수치다. 다만 SK바이오팜 선례를 살펴봤을 때 당분간 소강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월 SK바이오팜 청약 직전 57조5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청약 마지막 날 하루 만에 10조1419억원이 빠졌다. 시장에선 그 이상이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으로 향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도 공모주 시장 열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만한 대안이 없어서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청약 열풍이 일며 청약 방식을 학습한 것도 공모주 인기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현재 시중 유동성은 SK바이오팜 상장 당시보다 훨씬 더 풍부한 상황”이라며 “투자자들이 SK바이오팜의 사례에서 일종의 학습효과를 얻었다. 상장 이후 추가 급등을 기대하는 투자자로 공모주 시장 인기는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 IPO 시장 역시 분위기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금융전문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지난 7~8월간 전 세계에서 241개 기업이 IPO에 나섰다. 같은 기간 2007년 이후 가장 많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강·의료(154억달러)가 가장 많았고 기술(147억달러), 금융(136억달러)이 뒤를 이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SK건설, 기술력 중심 친환경사업 진출

1조 투입, EMC홀딩스 SPA 체결
리유즈·리사이클 등 기술개발·도입
복합환경처리시설 등 신사업 추진



안재현 SK건설 사장.

SK건설이 국내 최대 환경플랫폼 기업을 인수하며 친환경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SK건설은 지난 1일 열린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사 어펠마케피탈과 EMC홀딩스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EMC홀딩스 주식 전량(지분율 100%)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인수금액이 확정되며, SK건설은 보유 자금과 인수금융 등을 활용해 약 1조원 규모의 인수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EMC홀딩스는 하·폐수 처리부터 폐기물 소각·매립까지 전 환경산업을 아우르는 종합 환경플랫폼 기업이다. 전국 970개의 수처리시설과 폐기물 소각장 4곳, 매립장 1곳을 운영하고 있다. 수처리 부문에서는 국내 1위 시장점유

율을 보유한 사업자이며 폐기물 소각·매립 부문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인수를 통해 SK건설은 EMC홀딩스의 사업을 기반으로 리유즈(Reuse)·리사이클링(Recycling) 등의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도입해, 기술력 중심의 친환경기업으로 성장해나갈 방침이다.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제조공간인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폐열·폐촉매를 활용한 신에너지 발전, 터널·지하공간 기술력과 융합한 신개념 복합 환경처

리시설 개발 등 기존 플랜트 및 인프라 현장과 접목한 신사업들도 함께 추진한다. SK건설은 친환경사업에 본격 진출하면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다수의 해외 프로젝트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새로운 글로벌 사업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폐기물 처리 수요가 높은 그룹 관계사와의 시너지 효과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MC홀딩스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만큼 각 지역 중소비즈니스 파트너사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금융·기술·교육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SV) 극대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안재현 SK건설 사장은 “국내 최대 환경 플랫폼기업인 EMC홀딩스 인수를 통해 본격적으로 친환경사업을 영위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국내 환경산업의 선진화와 글로벌 환경이슈 해결을 돕는 기술력 중심의 친환경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ywj964@



싱가포르 투아스핑거3 매립공사 현장. /현대건설

현대건설, 싱가포르 ‘산업안전 보건’ 금상

이노베이션 어워드 부문 수상
투아스 핑거3공사 성과 인정

현대건설은 ‘투아스 핑거3 매립공사’ 현장에서 케이스 제작에 자동화 설비를 이용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안전 사고 위험과 더불어 근로자들이 독성 물질에 노출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2일 “이번 수상으로 당사의 안전관리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안전분야 선도 업체로서의 입지를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선도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현대건설이 싱가포르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에서 주관하는 ‘산업안전 보건 혁신 어워드 2020’ 건설부문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 혁신어워드는 산업 안전 보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로 기여한 조직과 개인에게 주는 상이다. 현대건설은 작년 샤프(Sharp) 어워드 부문에서 3개 현장이 수상한데 이어 올해는 이노베이션 어워드 부문에서 상을

한화 ‘포레나 순천’, 전 주택형 1순위 마감

평균 48대1 청약경쟁률 기록
119㎡ 타입 111.55대1 ‘최고’

로 111.55대1을 기록했다. 이어 ▲101㎡ 타입 90.64대1 ▲84㎡A 타입 49.73대1 ▲84㎡B 타입 18.71대1의 순으로 집계됐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8일이다. 정당 계약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포레나 순천은 3.3㎡당 평균 980만원 대의 분양가로 책정됐으며,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했다. 분양관계자는 “최근 순천 분양시장이 활황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포레나 순천 투시도. /한화건설

한화건설이 전라남도 순천에서 선보인 첫 번째 포레나 브랜드 아파트 ‘포레나 순천’이 전 주택형에서 1순위 마감됐다. 2일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일 진행된 ‘포레나 순천’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392가구(특별공급 제외)모집에 1만 8831명이 접수해 평균 48.04대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청약 경쟁률은 ▲119㎡ 타입으

도 기대 이상의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다”며 “순천에서 처음 들어서는 한화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 ‘포레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미래에셋대우 해외주식투자자 실시간 시세 제공

미래에셋대우는 해외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부 국가의 개별종목에 대한 실시간 시세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해외주식을 1주만 거래해도 해당 고객에게 다음달 미국과 일본 개별 주식의 실시간 시세 서비스를 한달 간 무료로 제공한다. 실시간 시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미국(나스닥, 뉴욕, 아멕스 거래소)과 일본(동경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이다. 지난 8월에 해외주식 거래가 있는 고객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나 모바일

일트레이딩시스템(MTS) 상에서 해외주식 실시간 시세 서비스 신청만 하면 이날부터 무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한섭 미래에셋대우 WM사업본부장은 “최근 고객들의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주식 거래 고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